

社說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내자 —조영식총장의 사퇴와 한·약본쟁의 심화를 우려한다

93년들어 진화개혁 관심이 되어 왔던 약사법개정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은 채 많은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대학만 하더라도 6백50여명의 학우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3천여명에 달하는 한의대학생들이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수업거부로 인하여 집단유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우리 대학 역사상 초유의 일로 한의대생들의 마비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며, 해당분야 대학입시의 중단상태, 학교 예산상의 결손문제, 약사법회의의 대립 등으로 일관하여 확대될 조짐이다.

그동안 학교는 이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학기내내, 그리고 방학동안에도 거의 쉬는날 없이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장이하 관계 부서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끝내 유급사태는 오고 말았다.

대학역사상 초유의 사건

급기야 지난 8월27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교 조영식총장은 사퇴의 결심을 밝힌 것은 주목을 받았다.

우리 대학의 한의과대학은 세계최고의 한의학분야 개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분야 개척전선으로 기여해 왔고 이같은 위상때문에 정권의변태의 일거수 일투족은 어디 갈수록이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정에서 우리 한의대의 존재는 단순한 개척전선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 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계고 45주년을 바라보고 대학의 재도약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펴고있는 차근차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총장의 사퇴야말로 모든 정권이들에게 큰 손실이다. 패퇴후원 전정의 잣대위에 대학을 세우고, 현대사의 격변속에서도 유연히 서서 오늘날의 패권을 이부기까지 그 정권에 바친 한의대생의 헌신과 희생, 뜨거운 제사사와들은 비전의 제시, 피마어린 정성을 너무나 큰 것이다. 그동안 정회가 베풀었던 수많은 인재들, 학술분야의 개척을 통한 문화창조, 갈살기-발문사회운동과 세계평화의 종전으로 조영식총장의 운명을 던지는 노력 없이는 결코 이부가 어려웠을 것이다.

정권인들의 큰 손실

2천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대학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이것은 대학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개척정기를 넘어 이제는 학교평가가 도입되어 학교의 우열이 오차되어 할 기로에 놓여 있다. 수월도 서판을 비롯하여 고대의료원, 가정대학 등 사학한 건설사업은 방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95년 UN의 의한 개발은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리치를 예고하고 있

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일부대학들의 그 수저스런 무정당학사제도도 불구하고 한사판의 부흥도 없이 가장 깨끗한 대학으로 밝혀져 재학생은 물론 모든 동문들이 자랑스런 대학생으로 인정되어 있다. 더구나 여러대학들이 경영상의 난항으로 빚을 지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학교의 내실을 튼튼히 해오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불씨

한국의학생들에게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와 수업을 받으며 자기들의 주장을 펴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주의를 끌만한 환경이 되었으며 학원복귀를 통하여 그 정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급사태를 이순간에도 막아야 한다는 바를 버려서는 안된다. 그것이 또한 우리 대학을 인정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수와 본교부, 그리고 국회의를 비롯한 관제대학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한다. 9월3일 발표한 약사법개정안이 이 사태를 피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무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관계자들의 마음적외로 우유부단한 태도가 사태를 이처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본다. 도하신문에 발표된 정경철은 실로 가관이다. 한약 양원의 집단대응은 사회의 큰 불안요인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을 걱정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 창조할 때

어두워 보이는 전방을 앞에 두고 우리 정권인들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안일과 불확실성, 후 개인이주의의가 고개를 들지도 못한다. 만일 모호하는 일류(?)대학들이 한의과대학을 갖고 있어 사학가 이직경에 이르렀다면 이아사학 전과가 많았을리라고 예견하는 것도 지나친 과잉반응일가? 그대 구상원과 그 출신들이 발벗고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내적동요를 막고 결집하는 것이 우리 대학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한약 양원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을 위해 서로를 양보하고 대화하여 해결하는 풍토와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2천년대를 바라보고 지나치게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대중적차원에서 해를 이룰 때이다. 대학원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신뢰와 사랑의 회복이다. 자의 입장에서 사학을 보기도 하지만 전선의 눈으로 경화를 봐야한다.

술의 나무를 다 보지는 아니가. 권의 구상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개선 등을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수립하는데 모두가 동참하자.

근본적 처방질심 '한의대 사태'

한의과대학생 당사자나, 교수, 학교 등 전 경력이인이 열려있던 한의대생의 집단유급이 현실로 나타났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교육부시행규칙 제61조, 이하 동법)을 ▲부득이한 경우 긴급유급수입일수를 1학기 14수로 할 수 있다(62조) ▲학점은 학기단위로 취득한다(120조)

1학기동안 40여명의 수업만을 받았을 뿐인 한의대생들이 유급당하는 바람에 근거가 바로 위키의 조항이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 17일 각 총장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한의대생의 집단유급은 이제 법집행의 실행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본교장을 비롯하여 전국 4천여명의 한의대생이 집단적으로 유급을 당했으며 여기에는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했을 때, 남학생은 원형 병영제도상 군입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수는 남학생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해 학교측만이 상당한 재정손실을 입게 될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94학년도 졸업생들은 '법적으로 유급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동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영식총장은 '법적으로 유급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동행이다.

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사회학과 한의대생의 집단유급사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목소리는 보건사회부가 수업거부를 시켰을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집단유급에 직면하지 못했다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5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육이 영남대와 충북대, 전남대의 약학대학 학생들도 지난 9월 2일 수업거부를 시작해 '한의대사태'는 학원일

한의대 수업거부 관련일지

- 93. 2. 23 보사부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3. 5 시행 규칙 판보 개제
- 3. 12 연의사와 한의대생 보사부앞 첫 시위
- 23. 3. 23 본교 한의대생 수업거부
- 3. 31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 설립
- 4. 1 약사법 시행규칙 실시
- 5. 1 연의사와 약사법개정 국회청원
- 8. 1 약사법 약사법 개정안 국회청원
- 5. 21 보사부와 연의대 청정원 '한약의료발전방안' 마련
- 5. 25 교육부주최 한의과대학 학사운영회의에서 학생유급규칙 논의
- 5. 26 보사부와 정경철 등 4개 한의대학장 반대, 학생 수업거부 청원대회 논의
- 5. 31 보사부,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발표
- 1. 1 보사부 한방과 신원일 담당장관 임명.
- 7. 12 본교 한의대생 수업거부
- 7. 26 한의대생 제2차 수업거부 결의
- 8. 27 조영식총장 한의대생 집단유급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다
- 8. 28 총학생회장 한의대학생회장 기자회견
- 2. 2 보사부,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임명, 학생 대 3개 약학대학 수업거부 시작

로써 치달고 있는 것이다. 연 '약사조례'문제는 그 본래의 사안이 무엇이었

던 간에 놓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무정부적 언론자본의 '아킬레스건'

사설 ABC제도와 언론자본

신문잡지주주 공사제도(ABC제도)가 발표되고 있다. ABC제도는 각 회원사로부터 기초자료를 보고받아 제 3자의 공인된 조사자를 통해 객관적인 인쇄매체의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언론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 과학적인 광고 정책 수립 그리고 언론사 영업에서의 윤리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1914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세계 23개국에서 실시 또는 준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ABC협회가 지난 1989년 5월에 공식 출범하여 34개 일간지 14개 주간지 32개의 광고주 및 20개의 광고회사와 1993년 6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약 4년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한국 ABC협회는 당초 92년 7월의 예비공사를 실시한 예정이었으나 대다수 신문사의 부정적인 태도로 무산되었고 올 7월의 신문부수 내역보고에도 중앙의 한계로 신문과 지방지인원일보 그리고 주간지인 평화신문 등 3개 신문사만이 응해 전달까지 회 회신사의 발행

등의 지향에 부합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언론의 '무정부적' 자본운동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전국연합체'나 '제도인원' 등의 지장수립이 못한 변명

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은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광고수입 '잣밥'에 근본개혁은 '나 몰라라'

부수공개는 언론산업구조 조정의 기초

첫 처럼 역대 정권하에서 '언론자유'를 담보로 '언론자본의 자유'를 구가, 착실한 내적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80년대 언론기본법으로 구축된 일간신문의 카르텔구조는 기존 언론사들의 '원시적 언론자본주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88년 외환위기로 악화되어온 언론사들의 카르텔구조는 자유롭게 되고 있는 우리 천천히 사교하여 사 발행부수의 공개제도는 언론자본의 카르텔구조를 건드리

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ABC제도로 지금까지 무뎠던 언론자본의 카르텔구조를 깨고, 발행부수가 노출되게 되고 있는 우리 천천히 사교하여 사 발행부수의 공개제도는 언론자본의 카르텔구조를 건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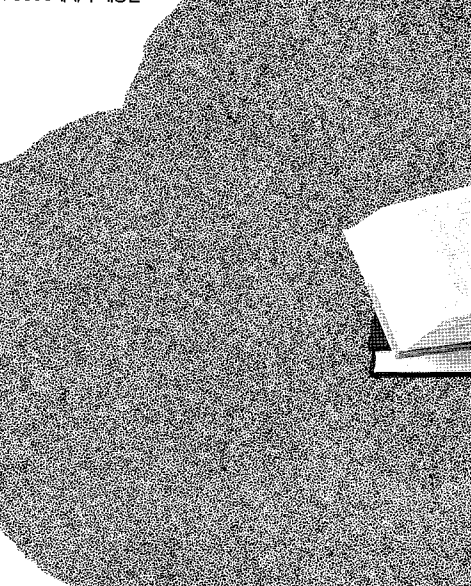
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ABC제도로 지금까지 무뎠던 언론자본의 카르텔구조를 깨고, 발행부수가 노출되게 되고 있는 우리 천천히 사교하여 사 발행부수의 공개제도는 언론자본의 카르텔구조를 건드리

발언은 (1993년 4월 6일 언론학자, 광고관련단체장 초청 토론회에서)국민을 포함한 전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부르는 언론이 그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불균형에 대한 정확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간 광고비 40억(그중 신문광고비는 약 44%)로 세계 10위의 외환으로 성장한 우리의 언론산업 구조하에서 발행부수 공개제도는 공정한 '게임의 룰'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언론사들의 이에 대한 거부반응에서는 결국 그들이 시봉해 마지않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형성'을 막는 건전대책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대환

(정경계 교수·신방)

POSCO배치서 개강편



身冊不二

"학도와 책은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물의 영양분으로 성장하듯, 우리의 정신은 책을 통해서 살찌워지는 것입니다.

방학동안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강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정신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키워나가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해 가는 귀중한 시간들 - 대학생활을 이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정신세계를 더욱 넓게 크게 만드는 책과의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포항제철은 제철부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켰고, 기업 정신으로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제철 POSCO